

한국 로맨스 무협의 서술 전략 및 특성 연구

-<사천당가의 시비로 살아남기>를 예시로-

서원득(연세대)

1. 서론

-2010년대의 무협 웹소설 시장에 있어 여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을 차지한다. 특히 여성 독자를 위주로 한 '로맨스 무협'은 2010년대 초중반 이래 탄생하여 2020년을 전후로 일정 정도 세를 이루었다.

-한국무협이 발생한 이래 '로맨스 무협'이 여성 독자 중심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그 새로움과 이론적 중요성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지만, 아직 무협 연구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접근이 시작되지 못했다.

-본고는 2020년대 본격적으로 생산된 '로맨스 무협' 중 인기가 많고 무협적으로도 깊이가 있다고 평가된 <사천당가의 시비로 살아남기>(2022, 이하 <사시살>)를 대상으로 그 서술 전략과 특성, 그리고 이론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이때 서술 전략을 살피는 것은 2010년대 후반의 신규 여성 독자 포섭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함이며, 작품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무협과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교섭이 어떻게 새로운 장르적 변이를 가능하게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로는 무협과 여성(협녀)의 관계를 다룬 저작들을 참고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개가 새로운 국면으로 변하기 전인 195화까지로 삼았다.



작가	Molae	작품	<사천당가의 시비로 살아남기>
연재처	카카오 페이지	연재일	2022년 12월 22일 (연재중)

2. '로맨스 무협'의 발흥과 포스트 <화산귀환>의 서술전략

-무협에 광의의 로맨스 자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협의의 로맨스 장르가 무협에 적용된 것은 2010년대 초반 네이버 웹소설에서 <천하제일>(2013)이나 <장씨세가 호위무사>(2014) 등의 작품이 등장하면서 었다. 이렇게 '로맨스 무협'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2010년대 중후반 당시 불황에 있던 무협소설 시장에서는 여성도 불편함을 겪지 않을 텍스트 제작을 시작했다. 이때 <자객전서>처럼 멜로를 변이한 것도 있으나, 대다수는 로맨스를 아예 제거하는 소위 '노로맨스(no-romance)'를 지향했다.

-이후 <화산귀환>(2019)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여성독자가 대거 유입되었으며, 동시에 <무협지 악녀인데 내가 제일 썩!>(2019)와 같이 로맨스 시장의 독자를 주로 염두에 둔 무협 로맨스가 하나둘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 진행의 궤적 아래 등장한 것이 바로 <사천당가의 시비로 살아남기>이다.

-이때 <화산귀환>은 신규 무협 독자에게 무림의 각종 요소를 백과사전식으로 일일이 설명하는 서술 전략을 취하는데, 2022년에 등장한 <사시살>은 그와 다르게 '무협을 어느 정도 읽어본' 여주인공이 부장님과의 대화나 스승 및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아 무림강호를 더 디테일하게 알아나가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3. 무협과 로맨스 판타지의 접변

-<사천당가의 시비로 살아남기>는 무협적 깊이가 매우 깊다고 평가되는데, 해당 소설은 세력 판도 같은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혈도 운용, 전투씬 구성, 각종 기물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접근을 보여준다. 물론 이 접근은 차를 물이 아니라 귀한 기호품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한국적인 것이긴 하지만, 반대로 1920년대 이래 100여년 간 쌓여온 각종 무협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체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탄탄한 무협적 기반 아래, <사시살>은 거대세가의 '시비'로 대표되는 로맨스 판타지의 시선을 동원해 무림을 재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무림은 독이 든 빨래가 넘치는 노동의 세계이며, 손속이 독한 무림고수가 남의 생사를 불합리하게 결정하는 야만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가 내부의 가사 노동, 그리고 폭력적인 불합리의 측면은 기존의 남성 중심 무협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바로, '시비'라는 설정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사적 공간'의 문제 및 불합리한 권력 구조이다.

-<사시살>은 이 불합리한 권력 구조를 체험한 주인공에게서 시작해, 그녀가 무림에서의 사회적(혹은 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변인을 지키는 협(俠)'을 견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력(武)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4. '표정'과 정(情)의 문제, 그리고 이론적 의의

-<사천당가의 시비로 살아남기>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제한시키며, 때문에 주인공은 물론 독자까지도 주변 인물의 선악이나 호의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주인공은 주변 인물의 '표정'과 그 안의 마음까지 읽어야 하며, 그것을 감안하여 무림 안에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구조는 소설 도입부에서 '부장님'이 사람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무협을 준 것에 조응하며, 실제로 이 소설은 무와 협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감정(情)을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데 그 전체적인 주제 의식이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무와 협 뿐만이 아니라 그 안의 정을 파악하여, 관계가 엉클어진 선대와 다른 서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이상을 볼 때 <사시살>은 단순히 여성 독자에게 디테일한 무협을 전달하는 데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협 그 자체를 로맨스 판타지의 구조와 더불어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증가된 깊이의 문제는 장르나 이론을 통한 어떤 접변에 내재한 잠재력을 감각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로맨스 무협의 한 시대를 건너는 대표작으로서, <사시살>은 그 안에 든 역량을 모두에게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